

‘학개 2 장 1’

➤ 들어가기

본 장은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7월과 9월 ‘학개’ 선지자에게 주신 3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.

1. 첫 번째 말씀 : ‘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!’ (1-9 절)

1)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,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. (1-2 절)

‘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,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.’

- 특별히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‘수장절’의 마지막 날!
 - 곧 대성회를 마치고 초막에서 집으로 돌아와 기쁨을 나누는 날! => 이때 말씀이 주어짐!
 - >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신 때에 응답하심!
- 참고: 이스라엘의 3대 명절
 - ①. 유월절(Pass over) : 애굽에서 구출된 날! -> 특히 마지막 장자들이 죽은 날을 기념!
 - 무교절(Feast of unleavened bread) -> 누룩없는 빵을 만들어 먹음!
 - > 바울=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표현!(고전 5:8)
 - ②. 맥추절 : 추수의 시작을 기념!
 - 유월절후 7주째 곧 50일째 첫 밀 이삭(열매)을 거두어 드린 날을 기념!(신 16:9 ~)
 - 초실절(Feast of the first fruits) 또는 칠칠절(Feast of Weeks)로도 불림.
 - > 신약: 부활 후 50일 곧 ‘오순절’로 대치=> 영적 추수의 시작
 - ③. 수장절(Feast of ingathering):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!
 -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산 것을 기념!
 - > 이때는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초막(장막)을 치고 대성회로 모임!
 - 초막절(Feast of booths) 또는 장막절(Feast of Booths)로도 불림.

2) 그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? (3-9 절)

①.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겉모습만 보며 실망하지 말고 굳세어 지라고 격려하심! (3-4 절)

‘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?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?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?’

‘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.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!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!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!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!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.’

- a) 솔로몬 임금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추억하는 사람들은 총독 ‘스룹바벨’과 대제사장 ‘여호수아’가 재건하는 성전이 하찮고 보잘것없다 생각하며 실망하였음!
 - 여기서 ‘보잘것없지 아니하냐?’는 말의 원어적 의미=> ‘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?’
 -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근본적 이유 => 성전의 내/외형적 화려함 + **법궤의 부재!!**

- b) 이때 하나님은 3 번씩이나 강조하여 ‘스스로 곧세게 할지어다!’ 라며 저들을 격려하심!
 - 곧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고 힘을 내라는 것!
 - 왜? 어떻게? => ‘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!’ 하심!!
 - > 곧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초라해 보이고,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또한 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곧세어지라는 말씀!
 - => 참 성도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항상 스스로 곧세게 설 수 있어야 함!!

②.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! (5 절)

‘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,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’

- a) 특별히 여기 ‘머물러 있나니’란 말의 히/원=’오메데트’란 말은 ‘과거, 현재, 미래’를 다 포함하여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함!!
 - >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,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!

③. 온 세상 만국을 진동시킬 일과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며,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광이 충만케 임하도록 하실 것! (6-7 절)

‘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조금 있으면,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,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,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,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’

- a) 원어 성경은 ‘조금 있으면’이란 단어 뒤에 ‘한번 더’란 단어가 있음! - 개혁성경은 빠짐!
 - 따라서 하늘/땅/바다/육지/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일이 이전에 있었음을 의미하고,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!! <= 매우 중요!!
- b) 그럼, 하늘/땅/바다/육지/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이전의 일은 무엇인가?
 - 성경은 2 가지 사건을 증언 => 노아의 홍수 + 출애굽의 역사!
 - >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증거!!
 - =>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한번 더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!!

c) 그런데 이때는 ‘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!’이라고 예언하심!!

-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 장 4-8 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/모든 백성을 구원할 보배가 되심을 증거!

=>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/죽음/부활을 예언하신 것!

d) 나아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‘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할 것을 예언하심!

- 이전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법궤와 구름이 상징했음!

-> But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후의 모든 성전의 영광과 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짐!!

④.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,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! (8-9 절)

‘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.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.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’

a) ‘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’ 말씀하시는 의미는?

- 은/금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아낌없이 받치라는 뜻일까? X

- 상황적으로 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은/금 같은 귀중한 것들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지 못하여 슬퍼할 때, 하나님은 그런 값비싼 외형적인 치장물들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신실한 마음/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주신 말씀!

->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의 외형적/기능적 모습만 중요하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, 하나님의 영광은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!

b)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이전 솔로몬의 성전때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요, 평강을 주실 것이니라 약속하셨음!

➤ 참고: 솔로몬의 성전과 스투바벨 성전을 비교

A. 솔로몬 성전

- 두로 왕 히람 - 선별된 목재와 숙련된 장인들을 지원!
- 외벽은 정교히 다듬은 흰 대리석으로 내벽은 백향목으로 + 그 위에 금으로 마무리!, 바닥과 문, 가구들은 올리브 나무와 황양목으로, 그외 집기들은 귀한 보석과 순금으로!
-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은이 34,000t, 금이 34,000t
- 성전 좌/우에 복층으로 창고를 만들어 성전의 모든 집기류와 보물들을 보관!
- 18 만명의 인부가 7 년동안 성전을 건축함.
- 성전의 크기는 좌우 50(22.8m)/100(45.6m) 규빗의 직사각형으로, 높이는 30(약 13.7m)규빗.

- 특별히 성전 안 지성소에는 법궤가 보관되었고, 열왕기상 8 장 10-11 절은 구름으로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증언!

B. 스투바벨 성전

- 스투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전공사가 시작됨!
- 그러나 시작 2년만에 중단 14년 동안 방치! (사마리아인들의 방해 + 열정이 사라짐!)
- 이스라엘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!
- 성전의 크기는 좌/우/높이 다 60 규빗(27.4m)의 정사각형 건물
- 이것은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른 것!
- 에스라 6 장 3-5 절 참고
‘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,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,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,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.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.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,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’
- 성전 안에는 법궤도 없고, 구름도 없었으나, 하나님은 이 전 영광보다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!!

❖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새로 결단한 것 무엇인가요?

❖ 중보기도 나눔